

2008. 6. 17. 화. 15:30~16:50. 하기목회자세미나. 고신대학교

고신의 성경관과 설교

변 중 길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서론

고신교단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고신의 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 성경을 한낱 인간의 말이나 가르침으로 보았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 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금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 계명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성경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고려신학교의 설립 목적이 옛 평양신학교의 정통신학을 계승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를 재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이며 토대이다. 특히 당시에 서울에서 성경 비평을 수용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조선신학교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고려신학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고신교단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고신교단은 출발 때부터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성경이 우상숭배를 금하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것처럼, 성경이 죄를 금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신교단과 성경은 뿔레야 뿔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으며 성경은 고신의 생명이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고신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는 성경에 대해 고신교단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가? 곧 고신의 성경관은 어떠했는가? 고려신학교가 설립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고신교단이 설립된 지도 5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성경관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관이 고신 목사들의 목회 현장에서, 특히 설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난날의 우리의 장점과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지킬 것은 지키며, 또 보완하고 고칠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고신교단의 성경관을 살펴본 다음, 고신교단의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고신의 성경관

1.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성경관

고신교단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수감되었다가 출옥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신앙이 고신교단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으며 그들의 성경관이 고신의 성경관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성경관을 가졌기에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가? 이에 대해 이근삼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일점일획도 가감할 수 없고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섭리로 주재하시는 유일 절대 지상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불변하시다. 다른 모든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으며 천조대신을 비롯하여 800만 신들과 역대의 천황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배하에 있다.”(이근삼,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개혁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이근삼 전집 2)』,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192.) 즉,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유일하신 절대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신앙은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곧 “일점일획도 가감할 수 없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성경관에 대해 이근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영감 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을 걸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숭배에 응하거나 동참하지 아니하려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였다”(이근삼,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192).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신사참배와 천황 숭배를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침략자요 지배자인 일본이 미워서 그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말한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곧 영감 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사참배 반대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에 대해 이근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는 말씀 중심의 충성을 바치고자 하여 그 인간적 고통을 참은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빼앗기고 그런 교회는 폐문도 당하고 양떼들은 산산이 흩어졌다. 그러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실행으로 보여주며 그것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교우들에게 알려 준 것이다”(이근삼,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193) 끝으로 이근삼 박사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성경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짓는다. “성경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높은 성경관은 오늘의 진리가 사라지는 교회들을 향하여 각성을 요구하는 경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말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근본적인 요소이다”(이근삼,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193)

이상에서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성경관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성경은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이나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이었다. 둘째로,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계명에 절대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다른 성도들과 구별되었다. 곧 이들은 그들

이 믿는 성경관을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실천하였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성경관은 하나의 교리나 지식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살아 있는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고려신학교의 성경관

출옥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6년에 설립된 고려신학교는 옛 평양신학교의 신학적인 전통을 계승하여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잇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려신학교 설립기성회”가 작성한 “고려신학교 설립취지서”에 보면, 이들은 고려신학교 설립을 통해 ‘정통신학 운동’ 곧 ‘명백한 정통체계에 있는 진리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정통신학’은 바로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을 믿는 개혁신학’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이었다. 칼빈주의 곧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理性)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다. 그래서 고려신학교 설립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거하여 성경을 비판하는 고등비평과 신(新)신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또한 그들은 역사적으로 불 때 성경의 진리를 거역한 나라들은 다 망하고 파괴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허순길, “고려신학교 설립취지서”, 「한국장로교회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역사편찬위원회, 서울: 총회출판국, 2002, 323-325를 참조).

이러한 설립이념은 고려신학교의 ‘교육이념’에 좀 더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다. 곧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그 대로 가르치며 또 장로회 원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리대로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생활의 순결과 순교적 이념으로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신학교가 개혁주의의 제일 중요한 기초인 ‘성경’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었다. 이것은 고려신학교와 고신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은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적, 주관주의적 신학을 거절하고 철두철미 계시의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신학교의 성경관은 당시에 성경비평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조선신학교 문제로 인하여 더욱 뚜렷한 특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1947년에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 및 신학사상에 반대하여 총회에 제출한 조선신학교 학생 51인의 진정서에 보면, 당시의 김재준 교수는 구약성경을 유대교의 성경으로 보았으며, 모세오경에 대해 J·E·D·P 등 문서설을 주장하였고, 이사야서 40장~66장까지를 제2이사야서라 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쓴 저자불명의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발행, 1956, 217f.). 학생들의 진정서로 인해 1947년 제33회 장로회 총회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 심사위원회 앞에서 김재준 교수는 자신의 성경관을 피력하였다. “즉 성경은 구속의 목적의 진리를 계시함에 있어서 무오한 것이고 결코 자연과학이나 역사과학의 순지식 부문에 있어서까지 무오한 것임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215.). 김재준의 이러한 성경관은 사상영감론으로서 만전영감과 축자영감을 부인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성경비평을 받아들이면서도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성경비평의 원조 제믈러(J. S. Semler)의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이러한 보고를 받은 총회 전체이사회는 김재준 교수를 불러서

그로부터 “성경무오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필승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서는 구속을 위한 특별한 계시라는 가장 견고한 지반 위에 서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덮어버리고 말았다(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215.). 그리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성경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김재준 교수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몇 년을 끌다가 1952년 4월 29일 대구에서 모인 제 37회 총회에서 김재준 교수를 면직처분하였다. 그가 면직처분을 받은 이유는 그가 성경무오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곧 그는 1) 성경의 역사적 오류를 말했고, 2) 성경의 과학적 오류를 말했으며, 3) 성경의 축자영감을 부인했고, 4) 오경의 모세저작을 부인했기 때문이다(이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 「이근삼 전집」 2, 158f.).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한 학생들 중 34명이 1946년 10월 전후로 고려신학교에 편입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고려신학교는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과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학생들의 진정서에 보면, 이들은 성경비평을 거부하고 신앙과 신학을 분리하는 조선신학교의 이념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 신앙은 성경 이외의 아무데도 기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을 때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파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은 보수적이거나 신학은 자유’라는 조선신학교의 교육이념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근대주의 신학사상과 성경의 고등비평을 항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신학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고등비평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결코 신앙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사실에 있어 파괴당하고 있는 데야 어찌합니까? 이 같은 사조로 인하여 현세계는 점점 비신앙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독일과 일본이 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216f.).

2. 박윤선 박사의 성경관

이러한 고려신학교와 고신교단의 성경관은 고려신학교 초창기 10년 동안 성경과 신학의 여러 과목을 가르친 박윤선 박사에 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지게 되었다. 그는 개혁주의 성경관 곧 그의 성경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고 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절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생(重生)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관하여 다음 네 가지 속성들을 믿는다. 1) 성경의 자증; 2) 성경의 필요성; 3) 성경의 명료성; 4) 성경의 충족성(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201-207.).

박윤선 박사는 그의 책 「성경 신학」에서 정통 교회의 성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박윤선, 「성경 신학」, 서울: 영음사, 1979, 21-27.). 그는 여기서 축자영감(逐字靈感) 교리를 정통 교회의 성경관으로 강조하고 있다. 먼저 “교부 시대(敎父時代)에 교부들도 성경을 그 마디마디 하나님의 영감 된 말씀이라고 믿어 온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참된 것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였으며(*Epist. to Jerome*, 82,ii,5), 또 “그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기록함에 있어서 어느 방면에서든지

오류(誤謬)를 범하지 않은 것은 가장 확실하다.”고 하였고(같은 곳),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에 전연 오착이 없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박윤선, 「성경 신학」, 22.).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가 초창기에 채택했던 「십이신조」의 제1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바탕을 둔 것인데, 이 신앙고백을 작성한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인 존 화이트(John Whit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성령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교회에 전할 교리의 실질만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성경 기록의 문구들과 방법과 제재(題材) 배열의 순서까지를 주셨다. 그것은 보통 사역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이다. 성령님께서 보통 사역자들에게는 복음의 실질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함에 사용된 말의 실수 같은 것을 제재(制裁)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였다(박윤선, 「성경 신학」, 25.).

나아가서 박윤선 박사는 삼대 칼빈주의 학자들인 위필드와 바빙크와 카이퍼의 성경관을 소개한다. 이들은 다 축자영감을 믿었으며 성경무오를 주장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된 것을 로고스가 육신이 된 성육신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곧 로고스가 낮아지셔서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피조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무오를 결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었지만 오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진이다.”라고 하였다(박윤선, 「성경 신학」, 27.).

나아가서 박윤선 박사는 하르낙과 헤르만과 같은 구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과 디벨리우스, 볼트만 등의 양식사학파의 성경관을 비판한다(박윤선, 「성경 신학」, 28-30.). 그리고 신정통주의와 바르트의 성경관을 비판한다. 바르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성경은 계시 자체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이 계시(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한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한다(박윤선, 「성경 신학」, 38.). 바르트는 성경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말하기를, “축자영감(逐字靈感)이란 것은 말이나 역사(歷史)나 신학적 성격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오류(誤謬)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축자영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 있는 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거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박윤선, 「성경 신학」, 39.). 나아가서 박윤선 박사는 벨하우젠과 같은 사람들의 고등비평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하고 비판하였다(박윤선, 「성경 신학」, 39-55.). 이런 점에서 박윤선 박사는 신사참배 반대자들과 고려신학교 및 고신 설립자들의 신앙의 바탕인 개혁주의 성경관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그 내용을 채워 넣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성경관을 위협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경계한 신학자로서 고신 신앙과 신학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근삼 박사의 성경관

이근삼 박사는 한 평생 고신교단을 지키면서 고려신학교와 고신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며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그가 평생에 가르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은 2007년과 2008년에 그의 전집 10권이 사후에 출판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았다.

이근삼 박사는 한국 장로교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12 신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그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한국교회사에 있었던 아빙돈 단권 주석 문제와 창세기 저자 문제와 여권 문제, 신사참배 문제, 김재준 교수 사건을 다루고 있다(이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 『이근삼 전집』4, 152-165.). 이러한 논의 바탕이 되며 또한 이근삼 박사가 받아들였던 한국 장로교회 보수주의의 기본 사상은 ‘성경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이었다(이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 159.).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으며, 그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간추려 놓은 것으로 역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와 신앙경험에서 고백한 신조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장로교회의 일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이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 165.)

이근삼 박사는 화란 개혁교회 교의학 교수였던 두꺼스(L. Doekes) 교수가 고려신학교에 와서 “현대 성경관 비판”이라는 주제로 특강한 내용을 직접 번역 출판하였는데, 여기서 두꺼스 교수는 성경 영감설과 성경 정확무오설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교회와 신앙고백이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이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 13-102.). 여기서 두꺼스는 성경비평가들과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관, 그 중에서도 특히 칼 바르트의 성경관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서 본회파의 종교관과 칼 바르트의 창조론 등을 비판하고 있다.

4. 오병세 박사의 성경관

오병세 박사의 성경관은 총회교육위원회가 출판한 「신약 개설」에 잘 나와 있다(오병세, 「신약 개설」, 총회교육위원회, 부산: 고신출판사, 1986.). 이 책의 제1장 “성경은 무엇인가?”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에게 주신 무오한 계시로서 구원과 의로운 생활 및 영생을 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오병세, 「신약 개설」, 13.). 그리고 현대의 성경비평가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요 ‘인간 이성의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배격한다. “그런데 성경을 부정적으로 비평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근래에 와서 특히 많아졌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로 보는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로서 진리의 영역에는 인간 이성의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하는 현대주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경을 하나의 문학서요, 역사서로 대하는 것은 중생하지 않고 죄로 가려진 마음으로 잘못된 출발점에서 그릇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오병세, 「신약 개설」, 18).

성경 영감에 대해 오병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의 영감은 성경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감상과는 완전한 별개의 것으로 성경 고유의 객관적 사실이다. ... 이를 살펴보면 인간이 성경을 썼으나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근원은 성령이심을 알 수 있다. 이 초자연적 영향은 성경 저자가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기록할 때 역사하여 모든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기록하도록 인도했다”(오병세, 「신약 개설」, 19f.). 여기서 우리는 영감이 성경무오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오병세 박사는 축자영감과 만전영감을 받아들인다. “성경의 영감은 (단순히 사상만 아니라 그 단어들도 포함된) 축자적(逐字的 = Verbal)이요, (부분적이 아니고 완전한) 만전적(萬全的 = Plenary)이다. 이는 전체 성경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유일한 영감관이다”(오병세, 「신약 개설」, 20.). 그러나 기계적 영감설은 반대하며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인다. “영감설 중에는 더욱 철저한 듯이 보이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것으로 저자의 개성 및 능력 등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즉 성경의 축어적(逐語的) 영감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견해는 기계적이라기보다 유기적이라는 것이다. 성령은 인간 저자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적 오류가 개입되지 않게 하신 것이다”(오병세, 「신약 개설」, 20.). 여기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성경의 무오를 해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은 다 같이 성경의 무오성의 토대 위에 있다. 오병세 박사는 나아가서 축어적 영감설과 성경의 무오성은 오직 원본의 원어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오병세, 「신약 개설」, 20.).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 오병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좀 더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필기자가 붓을 임의로 휘두르듯 사용하지 않으셨고 기록시키려는 단어들을 그들의 귀에 불어넣지 않고 오직 그들의 내면적 실유(實有)의 법칙과 조화되는 유기적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그들의 성격, 성벽, 재능, 교육, 수양, 용어, 문체대로 사용하신 유기적 작업이 곧 성경의 영감이란 것이다. 이 유기적 영감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감론이며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표준으로 삼는다”(오병세, 「신약 개설」, 43.).

영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상영감과 부분영감을 반대하며 완전축자영감을 주장한다. 먼저 사상영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혹자는 성경의 사상은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그것을 나타내는 문자는 저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사상영감을 말하나 사상은 문자로 표현되므로 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인즉 모순이다”(오병세, 「신약 개설」, 44.). 이어서 부분영감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끝으로 완전축자영감인데 이는 성경의 영감이 성경 각 부분 심지어 문자들에까지 동등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만전영감(plenary inspiration)은 성령의 충분하고 충족한 감화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계시이다. 따라서 이 계시가 사람의 마음과 의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엄격한 축자영감(verbal inspiration)은 성경 저자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감화력이 저희들의 주요한 사상에 미칠 뿐 아니라 말들에까지 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한 사상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전달함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병세, 「신약 개설」, 44.).

오병세 박사는 또한 칼 바르트와 볼트만의 성경관을 비판하고 있다.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고등비평과 역사적 예수 연구 등에 의해 갈갈이 찢겨진 성경을 구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역사적 산물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함으로 역사적 정통 성경관에서 떠났다”(오병세, 「신약 개설」, 20.). 볼트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볼트만(Bultmann)은 성경에는 신화와 참된 복음인 케뤼그마(Kerygma)가 섞여 있으므로 성경을 비신화화하기 위해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오직 실존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성경을 하나의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다”(오병세, 「신약 개설」, 21.).

이상에서 우리는 오병세 박사가 전통적인 개혁주의 영감설에 대해 잘 정리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축자영감과 만전영감이며 또한 유기적 영감이다. 성경은 전체 사

상뿐만 아니라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영감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신교단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토대 위에 출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축자영감과 만전영감, 그리고 유기적 영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성경관 신앙은 고신교단에서 더욱 뚜렷한 특징을 띠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성경관 신앙이 단지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었다. 곧 신사참배 반대의 신앙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정통 신앙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신앙이었다. 그런 점에서 고신의 성경관은 단지 정통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순결로 실천되는 신앙이었다는 점에 그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하겠다.

II. 고신의 설교

그러면 고신의 이러한 성경관은 실제 목회에서 어떤 특징을 띠게 되었는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에 있어서 어떤 성격을 띠게 되었는가? 특히 타교단의 설교와 어떻게 구별되며, 어떤 점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우선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제 설교

고신의 설교자들은 이처럼 고귀한 정통적 성경관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설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해방 직후와 교단 설립 초기에는 신사참배 반대의 뜨거운 열정과 영적 체험 등의 영향으로 인해 확신에 찬 설교를 하고 많은 감화를 끼쳤다. 특히 박윤선 박사가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던 1956년까지는 그에게서 배운 신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개교회로 가서 배우고 들은 것을 설교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가 떠나가고 초기의 열정이 식었을 때에 고신의 설교자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박윤선 박사를 통해 은혜로운 성경 주해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고신의 설교자들은 스스로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내어야 했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것은 곧 성경원어 실력의 한계였다. 스스로 원어성경을 읽고 주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고신의 설교자들은 자연히 본문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로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박윤선 박사가 떠나기 전부터 있어 온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애초부터 한국의 교역자들에게 원어는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주요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윤선 박사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는 수업 시간과 경건회를 통하여 개혁주의적이고 경건하고 은혜로운 본문 해석이 계속 제공되었기 때문에 고신의 설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풍성한 내용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의 시기는 일단락되고 고신의 설교는 더욱 주제 설교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교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고신의 설교는 도르트 회의에서 확정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설교의 뼈대 역할을 많이 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

님의 영광 등도 많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제 설교의 장점은 설교에 있어서 교리적 안전성을 지켜주고 개혁주의 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어느 본문을 펴서 설교하든 강조하는 주제는 늘 비슷하게 되고 본문 자체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고 고착화되는 위험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2. 윤리 설교

성경원어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한 주제 설교는 자연히 고신 설교자로 하여금 교리 설교와 함께 윤리 설교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본문을 깊이 연구하여 본문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한 주제 설교에 치중하게 만든 반면, 생활면에서는 자연히 윤리 설교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하고 죄악 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고신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인간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게 되었다.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과 죄악 되고 추한 인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설교가 바로 고신의 설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설교는 죄인된 인간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성격을 많이 띠게 되었다.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강조되기는 했으나 실제 생활면에서의 순결과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자꾸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된 것이다. 그럴 때 성도들은 한편으로 옳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감, 무력감,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런 부정적 심리의 치료와 해결을 위해서는 고신의 설교자들이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교단 전체의 분위기도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설교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대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의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주일성수는 십계명 중의 하나로서 이상숭배를 금한 1, 2 계명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킬 것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이었으며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사참배 반대의 신앙이 가미되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주일성수 강조는 주일예배 출석을 독려해야 하는 목회자의 절박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다른 교단에서도 다 강조된 것이었지만, 그 강조의 강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고신의 것이 더욱 강했다고 생각된다.

성도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주초(술·담배) 금지가 고신 설교의 뚜렷한 한 특징이었다. 이 설교는 꼭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강조했다기보다 생활의 순결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부터 강조해 오던 것이 해방 후 고신에 의해 계속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강조도 윤리 설교의 단골 메뉴였는데 이에는 성경적인 개념과 아울러 종종 유교적인 개념이 섞인 형태였다. 물론 이것은 단지 고신 설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교회 설교 전체의 문제이며, 오히려 타 교단에서 더욱 유교적이고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특히 부흥회에서).

이런 고신적 설교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사랑'에 대한 강조의 약화이다. 물론 설교자에 따라 사랑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신의 설교는 '사랑'에 대한 강조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에 대한 강조가 약하였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다 보니 자꾸만 인간을 ‘정죄’하고 ‘책망’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 ‘위로’와 ‘소망’에 대한 설교는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고신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자꾸만 책망 받고 야단맞고 위축되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보다 도리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에 있어서 고신의 설교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3. 구속사적 설교

이러한 고신의 설교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중에 1980년대에 들어서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관심이 신학생들과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관심이 일어나게 된 토양은 고신의 설교가 너무나 윤리화되고 단편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에도 쉽사리 오늘날의 윤리로 바로 적용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으로 단편화되고 개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관심이 일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은 박종철 교수로 생각된다. 그는 화란 캄펜의 트림프(C. Trimp) 교수의 책 (*Heilsgeschiedenis en prediking*, Kampen: Van den Berg, 1986)을 소개하고,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설교에 대한 글들을 쓰고 책들을 출판하였다(박종철, 「구속사적 성경 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구속사적 구약 성경 해석」,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설교. 그 흐름과 전망”(「목회와 신학」 1991년 4월호); 「문답식 구속사적 성경 연구: 창세기 1-25장」, 부산: 로고스출판사, 1996 등). 그러는 가운데 캐나다 목사 시드니 그레이다너스의 책(S.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Kampen, 1970 ; 시드니 그레이다너스,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역, 서울: 학생신앙운동, 1990, 2003(개정판) ; 원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박사 학위 논문임)이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설교’가 마치 정통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과 설교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 출판된 트림프 교수의 위 책은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한 책이 아니라, 1940년대 화란개혁교회 안에서 제기되고 행해져 오던 구속사적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물론 트림프 교수는 구속사적 설교의 장점을 지적하였지만, 그 단점을 많이 지적하였다. 특히 홀베르다가 ‘모범’이란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았는데, 성경에는 ‘모범(exemplum)’이란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역사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 예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였다(고전 10:6, 11, 약 5:10, 벧전 2:21 등; Trimp, *Heilsgeschiedenis en prediking*, 77-79).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설교 주장자들은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구약의 성도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였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였다. 따라서 지나친 기독교적 해석 또는 구속사적 해석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는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속사적 해석은 구약의 본문을 너무 ‘수평적으로(horizontally)’만 보며 ‘수직적으로(vertically)’ 보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구속사적 설교에 빠지면 안 된다. 물론 구약 본문에서 구속사적 의미를 찾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 구속사적 의미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교훈이 되는 것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롬 15:4).

III. 고신 설교의 나아갈 방향

그러면 고신의 설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특히 고신의 개혁주의적 성경관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래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본문에 충실한 설교

모든 설교는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원어 이해가 필수적인데 그 동안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원어 이해가 잘 안 되니 본문의 정확하고 깊은 뜻을 제대로 발견해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제 설교나 윤리 설교 또는 예화 설교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지나치게 교리적이거나 윤리적이고 또는 훈계적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깊고 오묘한 뜻을 드러내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자라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물론 원어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계적인 원어 설명과 분석을 하다 보면 원어를 모를 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자가 원어로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움이 되고 대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원어는 설교자 자신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 자체를 설교의 대상으로 삼으면 곤란하다. 원어는 간혹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뜻을 밝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는 설교자의 머리와 마음속에 용해되어 설교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문에 충실한 설교라고 해서 꼭 강해 설교나 주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문을 충실히 주해하거나 강해했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은 그러한 설교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충실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적용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 본문을 무시하고서 오늘날의 이런 저런 얘기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나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그 시간의 그 설교를 위해 읽은 본문에 주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2. 적용에 강조점을 두는 설교

고신의 설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단의 설교에 비해 비교적 본문에 충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용이 약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 왔다. 적용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 상황을 잘 모른다거나, 성도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위로나 격려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지침이나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타교단의 설교는 본문은 약하지만 적용은 강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찾는 현상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보다는 지금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게 무슨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인간적인 설교를 더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신의 설교가 적용이 약한 근본 바탕에는 고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일부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읽으려 하고 모범적 관점에서 읽으려 하지 않았던 경향들과, 그리고 대대로 고신의 설교에서 적용이 약하다는 지적은 성경을 혹 과거의 말씀을 보고만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화란의 개혁주의 고의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은 지나간 과거의 책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였다. “성경은 우리를 과거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연락시키는 지나간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옛날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살았고, 지금이나 장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해 주는, 영원히 살아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그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늘과 땅,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연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만 연락시키지 않고 현재 하늘에 살아 계시는 주님에게 연락시킨다”(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 1967, 356f.; 박윤선, 「성경신학」, 26f.에서 인용). 그리고 개혁주의 신약학자인 호로셰이드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적 계시로서의 성경의 특징에서 성경은 살아 있으며 지금도 살아 있다는 사실이 나온다. 성경은 살아 있는 말씀으로 주어졌으며 죽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한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지적할 때에라야 비로소 주석은 완성된다”(F. W. Grosheide, *Hermeneutiek*, Amsterdam: H. A. van Bottenburg, 1929, 65). 호로셰이드는 이것을 성경의 ‘깊은 의미(de diepe zin)’라고 불렀다(Grosheide, *Hermeneutiek*, 64-71, 183-215). 물론 ‘깊은 의미’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큰 용어이

다. 이것은 ‘살아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독일 학자들은 대개 ‘영적 주석(Pneumatische Exegese)’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교할 본문을 확정하고 문법적, 역사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주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로써 아직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호로셰이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까지는 아직 주석 작업이 끝났다고 보아서 안 된다고 말한다(Grosheide, *Hermeneutiek*, 183). 또한 화란의 유명한 개혁주의 주석가인 흐레이다너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읽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책임과 자기 자신의 통찰력으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과 상황들에 적용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우리를 위한 호소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느끼지 않게 된다. ... 우리는 성경을 또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후세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S. Greijdanus, *Schriftbeginselen ter Schriftverklaring*, Kampen: J. H. Kok, 1946, 123).

설교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살아 있는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영적 의미’가 바로 드러날 때 설교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즉,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에도 단지 역사적 사실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즉,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인내 또는 안위로 말미암은 ‘소망’을 생각해야 한다(롬 15:4). 그래야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히 4:12). 성경은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점에서 고신의 설교는 좀 더 ‘적용’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단지 본문을 충실히 해설하거나,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교가 다 된 것은 아니다. 또는 단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말하고 권면하고 촉구할 때 비로소 완성된 설교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고신의 설교는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설교

고신의 설교는 과거에 지나치게 정죄적이고 책망적이었다는 평을 들어 왔다. 소위 ‘치는 설교’가 많았다. 물론 죄에 젖어서 영적으로 나태한 성도들을 깨우는 데에 호통과 책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설교가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고신은 ‘신사참배 반대’라는 태동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 식의 설교로 흘러가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절대 순종,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 권위는 대단히 중요하고 옳은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세상 끝날 까지 이것을 붙들어야 하지만, 자칫하면 연약한 성도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설교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고신의 설교는 바로 이런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통신학과 높은 신앙, 순수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 대중적인 흡인력

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교회 성장에서도 뒤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상황이다. 어딘가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성경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고신의 성경관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정통 개혁주의 성경관이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것은 성경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치우친 이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치우친 이해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치우친 이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으며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다(롬 8:3,4).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한 마디로 말할 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한다(행 20:24).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롬 8:37-39)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강조가 더 많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삶속에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강조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이며(마 5:44, 22:37-38),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도 ‘사랑’이다(고전 13장, 골 3:12-14).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한없는 긍휼과 사랑,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형제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결국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롬 15:4)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설교여야 한다. 물론 때때로 책망과 훈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정죄하거나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 주는 것이야 한다. 사람은 소망을 가질 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롬 15:13).

물론 고신의 설교가 과거에 가졌던 높은 하나님 개념,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 죄에 대한 민감성, 계명에 대한 절대 순종 등은 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유산을 잘 계승하면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점, 약점들을 보완하고 고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물려준 성경관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생활의 토대이며 반석이다.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 되었다는 축자영감설,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이나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 되었다는 만전영감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유기적 영감설 등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요 뼈대이다. 고신의 선배들은 이런 고귀한 성경관을 가지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였다. 여기에 고신의 고귀함이 있고 독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성경관은 초창기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연약한 인간을 위로하고 소

망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정죄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앓았는지 염려된다. 곧 고신의 성경관은 설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고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물려받은 고귀한 성경관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운데 설교에 있어서 많은 보완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어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본문 연구에 힘쓰며, 또한 동시에 적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꿈과 소망을 주는 설교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